

1997년을 보내며

강철웅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총연맹 사무국장

1997년! 아마도 내 삶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한 해일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연장선에서 한 해를 맞이했고,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연맹)을 창립하였다. 총파업투쟁의 귀중한 성과의 하나로 연맹 합법성을 쟁취하였고, 처음으로 교섭권 위임을 받아 공동교섭을 치렀다.

전국민주화학노동조합협의회(화학노협)의 조직으로 맞이했던 총파업투쟁은 대단히 험거운 투쟁이었지만 가업노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총파업투쟁에 동참할 수 있었다. 화학노협의 조직은 금호타이어와 같은 대공장도 있지만 중소기업의 노동조합이 많다 보니 전면파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고심 끝에 부분파업과 간부지명파업을 결합하여 총파업의 대의에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조그만 노력이 총파업투쟁의 승리에 작지만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높은 기대에 밤을 지새우며

가업노조의 실정에 맞게 투쟁을 했음에도 총파업이 마무리되고 탄압이 뒤따랐다. 무노동무임금은 제쳐두고라도 부천시흥의 사물화장품노동조합과 우리화학노동조합은 김행부 불신임과 위원장 사퇴·조합원 탈퇴 등의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3월 16일로 예정된 연맹 창립 준비도 소홀함이 없어야 했다.

바로 그 때 화학노협에 열지화학을 비롯해서 충북지역의 정식품, 한국네슬레 등이 가입했고, 진주의 신동, 경기도 여주의 금강유리 등이 가입하여 연맹 창립을 준비하는데 큰 힘을 주었다.

드디어 3월 16일 화학연맹이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38개 노조 13,331명의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노총전선추진위원회 시절에 전노협에서 파견나가 화학산업 노동조합의 조직화의 임무를 맡아 94년 12월 9일에 전국화학산업노동조합 조직책임자 회의를 결성하고부터 2년 3개월여의 노력 끝에 96년 3월 1일 화학노협 출범을 거쳐 화학연맹 건설까지 자신의 임무로 해왔던

본인에게는 매우 소중한 보람이 되었다.

연맹 창립의 기쁨을 즐기기에 연맹에 주어진 과제가 너무나 엄중했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97년 임단투를 교섭권 위임을 통한 공동교섭으로 치르기로 결의하였다. 연맹으로서는 처음해보는 공동교섭이어서 과연 사무처 3인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산별노조로 가기 위해서는 제한적이지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하였다. 올해에 교섭권 위임을 받아 연맹이 개입한 노조는 엘지화학, 한국테트라팩, 금강유리, 오리엔트화학 등 4개 노조였다. 공동교섭을 진행하면서 연맹이 느끼는 부담은 매우 컸다. 연맹을 해결사로 보고, 연맹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조합원의 단결된 투쟁만이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도 그 기대는 작아지지 않았다. 밤을 새워가며 간부들과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맹과 노조 간의 이해의 폭은 넓어졌지만 요구에 걸맞는 투쟁을 하기에는 주체역량이 부족해웠다. 이 과정에서 요구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열심히 했던 간부들은 서운해 했다. 대중투쟁을 통해 임단투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는 노조들이 갖는 공통점이었다.

민주노조의 혁신을 꿈꾸며

공동교섭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중의 하나는 회사측이 민주노총과 화학연맹에 대

한 선입견이 매우 강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하면 '무조건 투쟁만 하고, 강짜만 부리는 단체'라는 선입견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선입견을 해소하는데 많은 논의와 개별접촉이 필요했다. 아직까지도 노조에 대한 인식이 전근대적인 회사가 많았다. 이는 공동교섭을 진행한 데 뿐만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별접촉하면서 느꼈던 점이다. '노조가 없으면 좋은데 있어서 별 것을 다 고민하게 만든다'는 인식이 강했다.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하나도 없었다.

공동교섭을 마무리하면서 조합원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올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에 노조 운영과 투쟁을 올바르게 배치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 대열에 합류한지 얼마 안된 노조가 많은 화학연맹만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노조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일대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

'민주노조' 하면 생각되는 상근간부의 현장순회, 간부토론회, 공청회 또는 조합원 현장토론, 정기적인 노보 발행, 정기적인 간부 및 조합원 교육, 풍물패·노래·울동패 운영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상직간부들의 전문역량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간부역량이 취약하니까 현장 여론선에 서 회사측에 밀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노

조의 공식적 입장 보다는 소문이 더 빨리 퍼지는 것을 볼 때, 이는 매우 절박한 문제로 간부역량이 빨리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서서 올바른 관점을 세워야 하고, 조합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노조의 정책과 전술에 올바르게 반영하여야 하고, 조합원을 설득하여 노조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조건과 책임을 나누며

연맹으로서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는 대통령선거의 참여문제였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지만 15대 대통령선거에 권영길 위원장님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연맹 실정으로 보면 앞에서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새롭게 민주노조 대열에 합류한 노조가 많다 보니까 연대활동이나 정치활동(사회개혁투쟁 포함)의 경험이 취약하고,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조합원의 입장이 명확하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집행부의 앞날을 책임지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비화되니까 매우 곤혹스러웠다. 물론 가맹노조 중에서는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정치실천단 조직과 활동을 하는 노조도 있다. '민주노총이 결정했는데 우리 연맹은 어려우니까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민주노총이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다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었다.

9월 4일 연맹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의 결정을 존중하여 실정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자'는 방침을 세웠는데 정치실천단 조직과 기금 납부가 잘 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회의에 나가면 '화합연맹에는 얼마가 배정되었는데 왜 잘 안되는가'라는 질책이 따라왔다. 연맹 내부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나왔다. '연맹이 정치활동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11월 20일 제5차 중앙위원회에서는 연맹의 가맹노조 실정을 제대로 알고 각 중앙위원이 가맹노조의 구체적인 실정에 기초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다. (물론 개인적 결의까지 포함해서) 도저히 안되는 데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잘 하는 데는 더 노력해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조건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한 것이다. 아쉽지만 실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결의하니까 후련해 했다.

끝으로 97년 한 해는 닥쳐오는 일을 허겁지겁 해결하다 보니 벌써 97년을 보내면서 라는 글을 쓰고 있다. 마음은 아직 5월정도인 것 같은데, 연맹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처지에 연맹 강화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남은 한달을 알차게 보내 98년에는 연맹의 중심적인 과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날로 새로워지고 발전하는 화합연맹이 되는데 부족한 역량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 내년이면 벌써 40이 되는구나. ♦